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아트와 기술이 결합한 ‘비즈니스’

마스터플랜 발표...테크놀로지·라이프 스타일 등 4개관 운영

9월 7일~11월 7일...세계 최고 권위 디자인상 ‘레드닷’ 참여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의 또 다른 문화행사인 예술비엔날레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산업(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추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또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레드닷(Red Dot)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화에도 힘을 쏟는다.

나 건 총감독은 “아트와 기술이 결합한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한 전시를 꾸미고, 다양한 체험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레드닷 수상작을 전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제품과 레드닷과의 콜라보도 진행, 지역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에 5개 전시관을 쓰던 것에서 벗어나 전시관을 4개관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지역 디자인 제품을 집중 전시했던 5전시관을 없애는 대신 지역 상품들을 4개 전시관 주제에 맞게 배치해 타 지역, 글로벌 제품들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전시는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등과 협의해 선정한다. 기존 5관은 굿즈 판매점 등으로 활용한다.

그밖에 광주시 5개 구청의 상징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상품화까지 시도하는 등 광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물을 생산해내는 것도 특징이다. 기술이 디자인을 만나는 ‘테크놀로지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가정, 사무실, 워크 스페이스, 테크 라운지 등 4개 존으로 구성되며 옛 물건이 전하는 감성과 하이테크 기술이 어우러진 현장을 함께 조성한다. 인조 잔디 등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의 공원도 재현하며 메타버스, 스포츠 등과 결합한 체험존도 운영한다.

회해왔고, 디자인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공한다. 디자인의 진화와 다양성의 중요한 가치를 전제 4개 전시관에서 하나의 스토리처럼 엮어 보여줄 생각입니다.”

나 건 총감독은 “아트와 기술이 결합한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한 전시를 꾸미고, 다양한 체험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레드닷 수상작을 전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제품과 레드닷과의 콜라보도 진행, 지역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에 5개 전시관을 쓰던 것에서 벗어나 전시관을 4개관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지역 디자인 제품을 집중 전시했던 5전시관을 없애는 대신 지역 상품들을 4개 전시관 주제에 맞게 배치해 타 지역, 글로벌 제품들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전시는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등과 협의해 선정한다. 기존 5관은 굿즈 판매점 등으로 활용한다.

그밖에 광주시 5개 구청의 상징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상품화까지 시도하는 등 광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물을 생산해내는 것도 특징이다.

기술이 디자인을 만나는 ‘테크놀로지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가정, 사무실, 워크 스페이스, 테크 라운지 등 4개 존으로 구성되며 옛 물건이 전하는 감성과 하이테크 기술이 어우러진 현장을 함께 조성한다. 인조 잔디 등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의 공원도 재현하며 메타버스, 스포츠 등과 결합한 체험존도 운영한다.



‘라이프 스타일관’은 사람, 예코, 취향, 커스텀 등 4개 존으로 나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 방식의 작품을 소개한다. 또 어린이, 반려동물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테마별 생활공간을 꾸리며 고객 맞춤형 제품도 전시한다. 그밖에 레드닷 디자인을 수상한 글로벌 가구를 집중 배치한다.

‘컬처관’은 K-컬처에 스며든 문화 경쟁력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아트와 공예, 레저와 놀이문화를 결합한 제품, 팬데믹과 치유를 위한 디자인도 눈길을 끌며 광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과 문화 상품, 공간 디자인을 선보인다. 영화, 가요, 웹툰 등과 결합한 팬덤 문화도 만날 수 있다.

‘비즈니스관’은 레고, 이솝, 포르쉐 등 글로벌 브랜드와 다이슨 등 디자인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기업 제품을 소개한다. 또 프랑크 리프, 스페인 발렌시아, 헬싱키 핀란드 등 세계 디자인수도를 통해 도시 브랜딩에 대해 탐색해 본다.

그밖에 피터 잭 레드닷 대표, 권영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김난도 서울대 교수, 송길영 바이브 부사장 등이 참여하는 국제학술 행사도 개최한다.

특별전도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Design meet Arts:예술, 기술, 디자인 경계를 허물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50여개국 45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스터 전시회가 개최된다.

한편 올해는 처음으로 광주시민 할인 제도(성인 3000원 할인 등)를 시행하며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통합 입장권(2만2000원)도 발매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동양철학·미술사...인문학을 만나다

인문학교육연구소, 이강서·이향준·양진호 등 강연

인문학교육연구소(소장 양진호)가 서양철학, 동양철학, 미술사 등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마련했다.

전남대 철학과 이강서 교수가 진행하는 서양철학 강좌는 상반기 플라톤의 ‘십포시온(향연)’을 읽는다. 오는 3월8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함께 읽는 책은 ‘향연/파이르로스/리시스’(서광사)다.

강의는 인문학교육연구소(광주 북구 무등로 20-1, 3층)에서 열리며 8일(오후 7시 30분) 공개강연은 수강료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서양철학사 탐색 1’(고대와 중세)을 진행한다.

동양철학은 ‘서(禮), 인간의 정경다리’를 펴낸 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서너 명 빼고 모르는 동양철학-은유, 체험, 인지’를 주제로 상반기에는 동양철학 일반의 개념을 다루며 무성서원 등으로 현장답사도 떠난다.

3월 9일부터 매주 목(오후 7시30분)요일 총 8강을 진행하며 첫날에는 공개강의 ‘괴롭고, 답답하지만, 따뜻한’을 진행한다. 이어

‘도(道)를 아십니까?’ ‘음양(陰陽): 그녀의 목소리’, ‘잃어버린 보물: ‘배움학의 의미’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진호 강사가 진행하는 ‘월간 미술사 모임’은 ‘미술 보기와 읽기: 선사시대에서 르네상스까지’를 주제로 월암유정(고창군 월암안길 18-1)에서 열린다.

3월 31일 ‘선사 시대와 모계 사회의 미술’을 주제로 열리는 첫 강의에서는 마릴렌 파투-마티스의 책 ‘파문인 여성: 여성의 눈으로 본 선사시대, 젠더 고고학의 발견’을 함께 읽는다. 이어 ‘그리스 미술’, ‘탄데, 세속을 노래한 시인’, ‘르네상스의 선인들: 브루넬레스키와 알베르티’, ‘알브레히트 뒤러’ 등의 책을 함께 읽는다.

양진호 강사는 로마 문명의 이해와 라틴어 문장 독해를 목표로 하는 어문학 훈련 ‘라틴어 초급반’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오후 7시30분)요일며 총 8강으로 운영한다. 수강료 등 문의 010-5924-606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초무’

“토끼해, 평안과 복락을 축원합니다”

광주시립창극단 ‘신춘’ 공연...3월10일 북구문화센터

‘새해 안녕을 기원합니다.’

광주시립창극단이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가족의 평안과 복락을 축원하는 의미를 담은 기획공연 ‘신춘(新春)’을 선보인다. 3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첫 번째 무대는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라’로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행복을 막아줘 수명과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지는 공연은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재구성한 ‘토끼 이야기’다.

2022년 새롭게 선보였던 ‘초무’도 다시 관람객을 만난다. ‘초무’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추는 춤으로 마치 신을 유혹하듯 요염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과 광란의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무용 작품이다.

남도의 대표 민속 공연인 ‘진도 씻김굿’도 무대에 올린다. 올해 워크숍을 통해 창극단이 새롭게 무대 작품으로 구성한 ‘진도씻김굿’은 부정을 몰아내고 집안의 우환을 제거, 가족의 재수를 비는 내용이다.

8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예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태 시 ‘단짝’ 서울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단장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다사로운 봄날 /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 교우 팔짱을 끼고 / 아장아장 걸어간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김선태 시인의 시 ‘단짝’이 서울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에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새봄을 맞아 광화문글판 문안을 김선태 시인의 시를 인용해 단장했다고 27일 밝혔다. 봄편의 문안은 따스한 봄날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봄이면 자연스레 볼 수 있는 장면은 겨울을 이겨낸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한다.

목포대 국문과 교수이기도 한 김 시인은 ‘햇살택배’라는 작품집에서 “인기척도 없는 따스한 선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봄편 문안은 두 사람이 걷는 뒷모습을 통해 저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을 떠올릴 울림을 주고, 세상을 함께 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진 출신인 김선태 시인은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의 시집과 ‘풍경과 성찰의 언어’, ‘진정성의 시학’ 등의 평론집을 펴냈으며 ‘영광시문학상’, ‘시작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7일 열린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나 건 총감독.

현대 지역신문의 뿌리 ‘광주전남 신문 100년’

일제부터 1987년 이전까지 지역신문 발전과정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지역언론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태동기부터 지역신문 발전과정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책 발간 의미가 크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연구소(연구소장 유종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신문 100년’이 그것. 필진은 언론홍보연구소 유종원 소장(전남대 신문방송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연구소 발간

일제~1987년 이전, 신문 발전과정 집대성

학과 교수)과 김승희 언론학 박사, 김옥열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등이 공동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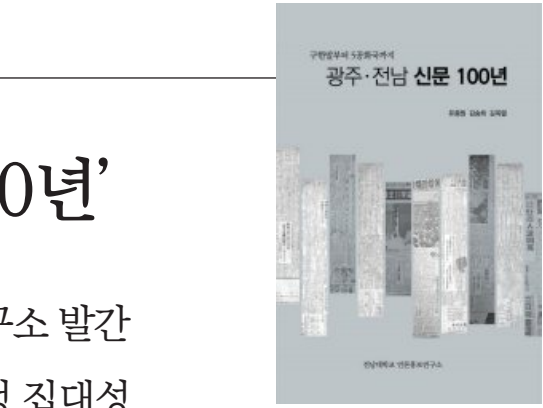
언론홍보연구소는 지난 2015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등과 함께 언론자유화 이후 지역언론사를 다룬 ‘광주전남언론사 연구’를 펴낸 데 이어 그 이전 역사정리를 마침으로써 지역언론사 연구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역에 신문이 처음으로 발간된 구한말 시대부터 1987년 언론자유화조치 이전까지의 신문 역사를 다루었다. 일제강점 이전 구한말인 1899년 일본인이 발행한 ‘목포신문’을 시작으로 신문이 본격 소개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 일본인 발행 신문시대를 지나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31일 ‘전남신문’이 발행돼 본격적인 우리말 지역신문이 출발했다. 이후 지역에는 전쟁과 군사독재정권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신문들이 명멸해 갔는데 구체적인 과정과 언론사별 활동내용이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정리돼 있다.

책에는 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와 관련된 자료들도 수록돼 있다. 전남일보는 민족 상잔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2년 2월 11일 타블로이 드판 2개면을 창간호로 발행됐다. 옛 전남일보의 창간은 뉴스를 자유롭게 접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건 건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다.

“1면 머리기사는 동맹방 UPI통신의 판문점 협상, 시론, 만평란이 실렸고 2면에는 축사, 시, 독자투



고, 일력, 기운, 쌍나팔 등을 실었다. 월 구독료는 4000원이었다. 창간호부터 단기 연호를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단기 연호는 1961년 12월 2일 연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인 1962년 1월 1일부터 서기로 바뀌게 된다.”

또한 책에는 현대 지역 신문의 뿌리로 평가되는 일제강점기 지역민들의 신문구독행태를 분석해 수록했다. 아울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지역신문 발아기)’, ‘미군정기(지역신문의 태동과 형성기)’, ‘이승만 정권기(정파적 지역신문 정립기)’, ‘박정희 정권기(상업주의 지역신문의 성장기)’, ‘전두환 정권기(지역신문 암흑기)’ 등으로 시대구분에 정리했다.

책은 이처럼 자료 부족 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매체별 생태계를 처음 정리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유종원 언론홍보연구소장은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 지역 언론은 광주전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헌이자 사료”라며 “과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추구하는 ‘오래된 미래’의 정신이 이 책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소장은 “타 지역에서는 모두 지역신문사가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늦어 아쉽지만 늦게나마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52년 2월 11일자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창간호